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북부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인권감독관 김지현
전화 02-3399-4866 / 팩스 0502-193-2118

보도자료
2019. 12. 16.(월)

제 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

- 금일(12. 16.) 서울북부지방검찰청(검사장 오인서)은 2020. 4. 15.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
-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거짓말선거, 금품선거, 불법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·공정하게 수사하여,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
- 또한 선거사범 전담반(반장 : 형사 6부장)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, 선관위,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

1 개요

- 일시·장소 : 12. 16.(월) 11:00~12:00,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중회의실
- 참석자(32명)
 - 검 찰 : 형사 6부장 검사, 선거 담당 검사 등
 - 선관위 : 강북·노원·도봉·동대문·성북·중랑구 선관위 관계자
 - 경 찰 : 강북·노원·도봉·동대문·성북·종암·중랑서 관계자

2

주요 회의 내용

- 『주요 선거범죄』에 대한 검찰·선관위·경찰의 집중 단속
 - 거짓말선거, 금품선거, 불법선전사범 등 ‘주요 선거범죄’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적극적 단속 및 신속·엄정하게 수사

<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 >

- 거짓말선거 사범 : △ 가짜뉴스 배포, △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제기, △ 특정 지역·성별에 대한 모욕·비하, △ 사실관계의 왜곡·과장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
- 금품선거 사범 : △ 지역행사나 모임 참여 및 지원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, △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, △ 설 명절 등에 선물이나 음식물 제공, △ 공천대가 수수, 금품·향응 제공 등
- 불법선전선거 사범 : △ 여론조사 빙자,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전 등

○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

- 관내 13개 선거구를 검사실별로 나누어 지정·전담하고, 각 유관기관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
- 중요·긴급사안은 선관위가 고발 전이라도 검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주요 자료를 확보
- 선거범죄 단속 방안 및 수사기법을 논의

○ ‘법과 원칙’에 따른 수사 및 처리

- 신분과 지위 고하, 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‘법과 원칙’에 따라 신속·공정하게 수사하고,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

3

향후 계획

-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9. 10. 18.부터 '선거사범 전담수사반(반장 : 형사 6부장, 선거 전담검사 및 수사관)' 편성 후 단계별 특별근무체제 돌입
 -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20. 10. 15.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유지할 예정
-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연말·연시 각종 모임 등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 예방하고, 발생시 신속·엄정대응할 계획임
- 검찰, 선관위, 경찰은 대상자의 신분,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'법과 원칙'에 따라 수사하며,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☑

선거사범신고센터 운영

- ▶ 대표전화 : 국번없이 1301(검찰청), 1390(선관위), 112(경찰)
- ▶ 서울북부지방검찰청 : (02) 3399-4672(야간 3399-4290)